

은둔생활 청년의 단절적 사회화와 은둔관행: 고립과 퇴행의 감정동학*

정수남** · 소준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 10명과의 구술생애사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은둔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년들의 은둔은 개인적 선택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닌 가족-학교-노동시장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실패와 결핍이 누적된 '단절된 사회화' 과정의 결과였다. 둘째, 이 과정은 성인기 이행에서 이들을 사회로부터 불가피하게 후퇴시켰는데, 이들에게 '방'은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지대이자 생존 전략으로 기능하며, 미분화된 일상성의 장이 되었다. 셋째, 이러한 고립은 경제적 의존과 소모적 소비, 로또와 같은 요행에 기대는 '우발적 미래' 등 특정한 은둔관행을 통해 재생산되었다. 끝으로 은둔은 한국 사회의 가시화되지 않은 일상적 폭력이 투영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은둔 청년을 병리적 대상으로 한자화하는데 머물기보다, 이들을 우리 사회의 내면성을 비추는 거울로 인식하고 이들의 사회화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제도적·윤리적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은둔생활 청년, 단절적 사회화, 퇴행, 탈사회적 일상, 은둔관행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240-0070-01). 연구의 문제의식을 북돋워 주신 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센터장님, 그리고 논문의 의의와 한계를 짚었던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snjoung75@gmail.com

***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사회학, 교신저자, junchol.kim,so@gmail.com

1. 서론

1) 연구배경

현대사회는 사회적 상호작용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공동체적 규범의 약화, 개별화 혹은 유동성의 증대와 같은 문화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거시적, 미시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 요인들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리면서 개인의 사적 삶과 사회집단의 형성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야기한 현상들 중 사회적 양극화, 디지털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상호작용, 공동체 약화에 따른 고립화 현상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허츠, 2021; Amichai-Hamburger & Ben-Artzi, 2003, 2011; Barker, 2012). 특히 양극화로 인한 계급적 분화는 은둔, 외로움, 고립에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Beller, 2024; Lee & Han, 2024; OECD, 2025: 87-88). 상층계급은 공간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면서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를 강화하는 반면, 하층계급일수록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바우만, 2019: 26-27). 사회적 폐쇄가 심화될수록 지배계급의 자원독점은 강화되고 그에 따른 불평등과 과열된 자원경쟁은 약자들의 몫으로 전가된다. 이 과정에는 공동체적 유대의 약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후기자본주의체제의 고착화와 포스트민주주의의 도래는 점점 극단화된 형태의 새로운 사회적 역설들을 야기하고 있다(피셔, 2024). 여러 현상들 중에서도 사회적 고립, 외로움, 고독 등을 경험하고 있는 인구집단의 확산은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다수의 인구가 대도시에 밀집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의 밀도와 규모 그리고 복잡성이 커지

고 있음에도 현대적 삶에서 ‘외로움’, ‘고독’, ‘고립’, ‘은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허츠, 2021: 123-138; Franklin, 2009, 2010, 2012; Kiley, 1989). 더욱이 사회적 삶이 고도로 디지털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상호 간 연결(connection)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반대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하면서 타인과 어울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Hookway et al, 2019: 8). ‘은둔형 외톨이’, ‘은둔청년’, ‘은둔폐쇄족’ 등으로 명명되는 ‘은둔생활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회적 고립, 외로움 등을 포함하여 은둔 현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찍이 선진산업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다뤄져 왔다(우치다 다쓰루, 2013; 김아래미, 2023; 정다은, 2023; 신영규, 2023; Ide Sohei, 2008). 200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이규미 외, 2001). 전통적으로는 고령자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집중되었던 고립이나 외로움이 이제는 반대로 사회적 관계를 쌓아가면서 다양한 사회화 과정을 수행해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10대~30대층, 이른바 청(소)년세대에게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족과 학교 등에서 기본적인 ‘사회성’을 함양하고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과 조직생활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생애과정과 달리 이들은 사회적 교류를 중단하고 집이나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

은둔청년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서 심리학, 사회복지학, 청(소)년 연구, 정신의학 분야에서 상당히 진척되어 왔다. 최근 은둔은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져 정부 부처 소속 연구기관들에서도 대규모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김성아 외, 2023; 서울특별시, 2022; 서정아 외, 2024; 유민상 외, 2021).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정책수행 기관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과 은둔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박주

홍 외, 2022; 이상인 외, 2021; 임형문, 2020).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만 19세~34세) 비율이 5.2%에 달하며, 약 54만 명 정도로 파악한다. 2022년의 2.4%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김성아 외, 2023: 27-28; 정세정·고혜진·김기태 외, 2025). 거시적인 수준의 실태조사 외에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서정아 외, 2024)에서 발행된 최근 연구와 같이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소개되고 있다. 특히 은둔청년 개인의 경험세계를 분석한 미시적인 연구들은 행위의 특성이나 유형에 주목하는 현상학적 접근을 활용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김혜원, 2022; 이지민, 2019; 노가빈 외, 2021).

은둔청년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은둔 청년의 발생원인과 실태를 밝히는 연구들로서 여기에서는 주로 세 가지 차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첫째, 신자유주의적으로 유연화된 경제 및 노동시장으로부터 축출된 청년들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회활동을 중단하면서 은둔생활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설명으로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원인을 찾는 논의이다(노가빈 외, 2021: 67-69; 정근하·노영희, 2022, 234-235). 둘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와 디지털플랫폼이 결합하여 구축한 기술적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논의이다(정근하·노영희, 2022: 236-237). 셋째, 가족이나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소통문제, 배제, 따돌림 등과 같은 개인적 경험에서 기인한 심리적 불안에서 원인을 찾는다(노가빈 외, 2021: 69-71). 하지만 이 세 차원의 설명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은둔생활 청년의 발생원인을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경험으로 각각 분리해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 은둔현상은 구조적 조건과 행위적 차원을 통합시켜 총체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은둔청년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분석한 질적 연구들로

서 과거 경험과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 장애나 고통, 그리고 현실도피적 행위나 무계획적인 생활양식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김혜원, 2022; 조미형·고아라, 2022). 이 연구들은 은둔청년들의 주관적인 경험세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행위특성을 세밀히 파악하는데 집중한다(이지민, 2019; 이윤지 외, 2015). 하지만 은둔생활로 이르게 된 장기적인 과정과 구조적 조건들을 간과하거나 소홀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이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이와 같이 질적 연구에 기반한 기존 연구들은 첫째, 은둔청년의 고립이나 은둔생활의 원인을 개별적인 단위로 다룬다는 점, 둘째, 개인의 주관적 성향과 사회적 조건들 간의 관계를 분리해서 이해한다는 점, 셋째, 은둔생활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혹은 성격적 요인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원의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은둔생활 청년들의 삶을 다층적이고 과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생애사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 방법은 은둔하는 삶을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환원시켜 이해하는 오류를 피하면서 은둔을 행위와 구조의 ‘결합태’로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은둔은 개인의 기질, 성향, 취향 혹은 심리적·병리적인 요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은둔생활 청년들은 어떤 경험들과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회적 고립과 은둔생활로 이르게 되었는지를 장기간의 생애과정 속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생애사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노가빈 외, 2021; 이지민, 2019) 각각의 경험들을 단편적으로 기술하거나 생애단계들 간의 관계를 과정적으로 이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은둔생활 청년들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먼저 이들이 경험한 사회화 과정을 탐색하고, 다음으로 은둔생활에서 반복되는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은둔생활자의 실천 혹은 관행

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영역은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증법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은둔생활을 ‘구조화’하고 재생산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화는 사회질서나 규범에 적응하고 터득하는 과정(미드, 2005: 244-246)과 짐멜의 개념을 전유하여 타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김덕영, 2014: 118) 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한다. 이렇게 볼 때 은둔은 사회화와 상반되는 의미를 함축하기도 하지만, 사회화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은둔생활 청년들이 어떤 성격의 사회화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탐색하는 작업은 은둔하는 삶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사회구조적 제약들을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2) 연구방법

필자들(ㄱ, ㄴ)은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소개로 다음 10명의 참여자를 인터뷰하며 구축한 구술자료를 사용했다. 이들과의 구술채록 과정은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의 생애사(윤택림, 2013)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작업이었다. 참여자와의 상호교류 속에서 구술자료를 함께 생산하는 과정(포르텔리, 1991)은 은둔에 대한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사회적 압력과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었다.

본 연구는 센터의 협조를 얻어 은둔 및 탈은둔 과정을 심층적이고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을 선정했다. 이들은 과거에 은둔 경험이 있는 탈은둔 청년과 자신을 완전히 탈은둔한 상태로 인식하지 않는 간헐적 은둔 청년을 모두 포함한다. <표 1>과 같이 이들의 연령, 가족 배경, 은둔 기간, 학력, 직업 경험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니지만, 센터 등 지원 기관과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방식과 속도로 탈은둔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일부는 상담과 병원 치료를 통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극복

하러 노력했고,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 훈련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일부는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자아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들은 센터와 같은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타인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중이거나 시도하려고 한다.

구술 채록은 2024년 12월 필자들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각 구술자별로 2시간 내외씩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수집된 구술 자료는 녹취록으로 작성되었으며,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고, 나이는 구술자에게 익숙한 ‘세는 나이’를 따랐다. 분석 방법으로는 “맥락 중심의 해석”(윤택림, 2019)을 적용했다. 이는 구술자의 입장에서 생애 경험과 이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존중하는 한편, 그들이 놓인 사회적 구조와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구술자의 삶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은둔청년의 생애 경험이 어떠했고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넘어 ‘은둔’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구술자들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개념과 발화의 맥락, 서사 구조 등을 탐색하며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표 1〉 구술자 개요

이름	성별	출생년도	나이(만)	은둔 경험 및 기간	학력	부모 동거 여부	출신/거주	인터뷰 일정	면담자
A	남	1996	28	공장 퇴사 후 (약 1년+ 재은둔)	2년제 대졸	비동거	서울/ 광주	(1차) 2024/12/6	ㄱ
								(2차) 2024/12/7	
B	남	1998	26	총 3차례 은둔 (각 4-12개월)	2년제 대졸	동거 (부모)	서울/ 광주	(1차) 2024/12/8	ㄱ
								(2차) 2024/12/17	

이름	성별	출생년도	나이(만)	은둔 경험 및 기간	학력	부모 동거 여부	출신/거주	인터뷰 일정	면담자
C	남	1997	27	간헐적 은둔 후 본격 은둔(21년~)	4년제 대졸	동거(부모)	여수/광주	(1차) 2024/12/9	ㄴ
								(2차) 2024/12/17	
D	남	2003	21	중학교 이후 지속적 은둔	고졸 검정고시	동거(부모)	광주/광주	(1차) 2024/12/11	ㄱ
								(2차) 12/18	
E	남	1996	28	중학교 학교폭력 후 은둔	4년제 대졸	동거(부모)	광주/광주	(1차) 2024/12/12	ㄴ
								(2차) 2024/12/26	
F	남	1990	34	20대 초반~현재까지 간헐적 은둔	4년제 대졸	동거(모/형)	광주/광주	(1차) 2024/12/18	ㄴ
								(2차) 2024/12/26	
G	여	1995	28	총 3차례 은둔(가장 긴 경우 3년)	대학 자퇴	동거(모)	함평/광주	(1차) 2024/12/19	ㄴ
								(2차) 2024/12/26	
H	여	2000	24	대학 중 퇴학 후, 이후 반복적 은둔	대학 재학(사이버대)	동거(부모)	서울/광주	(1차) 2024/12/20	ㄴ
								(2차) 2024/12/26	
I	여	1993	31	대학 중퇴 후 약 10년 은둔	2년제 대 중퇴	동거(부모)	광주/광주	(1차) 2024/12/20	ㄱ
								(2차) 2024/12/24	
J	여	2002	22	고2 자퇴 후 4년 이상 은둔	고교 자퇴	동거(모/동생2)	광주/광주	(1차) 2024/12/20	ㄱ
								(2차) 2024/12/24	

2. 은둔생활 청년의 생애과정과 ‘단절적’ 사회화

1) 가족 내 소통부재와 심리적 고립

가족은 사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가족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가족적’ 관계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소통체계이다. 소통은 의견교환이나 정보전달에 머물지 않고 상대방과의 인격적, 정서적 교감까지 포괄한다. 가족구성원과의 소통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호작용 규범, 나아가 개인의 성격, 성향, 자아정체성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에릭슨, 2022). 이런 점에서 은둔생활 청년들의 가족적 배경을 탐색하는 작업은 이들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로를 제공해준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구성원들과 친밀하고 원활한 소통문화를 형성해오지 못했다. 이들 중 몇몇은 어릴 때 이미 부모의 이혼, 별거, 재혼 등을 경험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기까지 했다. 일부는 부모와 함께 살더라도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대화가 거의 없고 서로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참여자의 부모들은 영세자영업(세탁소), 건설노동자, 경비원, 주차관리, 하급직 공무원, 요양보호사, 택시기사,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등 대부분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참여자들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신의 일과 가사노동만으로도 하루를 분주하게 보냈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았지만 가족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감정적 교류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가 단순한 가족 해체로만 끝나지 않았다. 불안정한 가족분위기는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수준을 넘어 타인들과의 소통문제까지 발생시켰다. H는 부모의 이혼

을 경험했던 9세 전후로 성격이 급격하게 변했다. 부모의 이혼 전까지만 해도 학급에서 반장도 맡았고 진취적으로 학업생활도 해나갔지만 그 사건 이후로 “성격도 많이 어두워졌고” 학교도 가기 싫었다고 하면서 “친구 사귀기도 아무래도 힘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다.” H는 초등학교 5~6학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제가 스스로 벽을 쳤고” 다가오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이상 친하게 지내거나 얘기도 거의 안 하고 지냈어요.”¹⁾

초등학교 4학년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A는 부모 양쪽 모두에서 양육책임을 지지 않게 되자 Z지역아동센터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생활했다. 시설 퇴소 후 임대주택을 지원받아 거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 A는 아버지와 얼마간 함께 살게 되었다. A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기간이 “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A에게 자립보호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며,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거나 A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달라고 집요하게 독촉했다. 인터뷰 내내 A는 아버지를 수차례 ‘최악의 인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죽여버리고 싶던데요?”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릴 때부터 대인기피증과 급발진 증상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아버지와의 좋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아버지와 연을 끊고 혼자 살고 있다. 결국 A는 너무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도 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가족 누구와도 친밀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뉘본 경험이 부재했다.²⁾

가족구성원들 간에 이렇다 할 갈등을 겪지 않더라도 정서적 소통이 부재한 경우 참여자들은 가족 내 고립을 경험했다. E는 아버지의 과도한 음주와 이로 인한 어머니의 불만이 가득 섞인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

1) 2024년 12월 20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H의 1차 인터뷰 중에서

2) 2024년 12월 7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A의 2차 인터뷰 중에서

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냈으며, 부모의 밤늦은 귀가로 서로 대화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 그는 가족구성원 누구와도 긴밀한 대화를 나누거나 정서적 유대감을 쌓지 못했다.³⁾ H, A, E의 사례처럼 어린 시절 가족과 친밀한 대화나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소통해온 참여자들은 매우 드물었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와 친밀한 소통구조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문화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부모들은 자녀와의 소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해오지 못했다. 이같은 배경조건 속에서,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 외부 위험에 노출되거나 또는 학업과 진로를 모색해야할 경우 부모들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깊게 갖지 못했으며, 참여자들도 부모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잘 꺼내놓지 않았다. 자녀에게 생긴 문제(학교폭력, 따돌림, 외로움 등)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제한적이거나 동원했지만 자녀가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지니지 못했다.

I는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부모에게 털어놓았지만, 부모는 학교에 몇 차례 방문해서 교사와 상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교사와의 상담만으로 I가 학교에서 겪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I가 스스로 터득한 방법은 ‘참고 인내하는 것’ 뿐이었다. 그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까 봐” 학교를 억지로 다녔으며, 전학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갈등도 많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냥 버티라’는 말이었다. I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고’ 모두 자신을 “유령 취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⁴⁾ I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상황을 경험해야만 했던 다른 참여자들 또한 일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 대응

3) 2024년 12월 12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E의 1차 인터뷰 중에서

4) 2024년 12월 20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I의 1차 인터뷰 중에서

자체를 포기해 버렸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자신의 고통을 부모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거나 한참 뒤에야 털어놓는 경우인데,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없다는 걸 ‘간파’하고 있는 듯 보였다. 도움을 요청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체념과 함께 자신과 부모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 전개될 내용에서도 드러나겠지만 가족은 참여자들이 학교생활 동안 겪었던 괴롭힘, 왕따, 폭력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가족은 참여자들이 은둔생활에 이르도록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2) 학교, 반사회적 사회화 공간

참여자들이 은둔하게 되는 여러 계기들 중 학교에서 또래들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는 기초적인 학업능력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문화적 규범과 감각을 익히게 해주는 기관이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상호작용과 일상생활의 지속을 위한 사회문화적 관행을 습득해나간다. 하지만 참여자들에게 학교는 이와는 전혀 다른 곳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학교는 폭력, 괴롭힘, 따돌림, 무시가 난무하는 ‘지옥같은’ 곳이었으며, 그에 따른 여파로 또래들과 친교를 형성하지도 못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에게 학교는 사회적 관계를 축적해나가는 곳이 아니라 관계단절을 익혀나가는 공간이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금품갈취, 놀림, 언어폭력, 과제 대신 수행하기, 따돌림, 공포감 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행해진다. 이러한 각각의 폭력적 행위는 단일하게 행사되기되기보다는 상호 중첩된 방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괴로움과 고통은 가중된다. E는 중학교 시절 내내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렸는데, 당시 경험이 현재까지 “저주”처럼 끈질기게 따라다닌다고 말한다.⁵⁾ C는 초등학교 6학년 당시 “힘세고 등치

센 애가 자기 꼬봉처럼 만들려고 때리”기까지 했다면서 그 후로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⁶⁾ B는 “뉴스에 나올만한 건 그때 다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라는 말로 자신이 경험한 학교폭력의 피해 강도를 일축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교사와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⁷⁾ 참여자들이 경험한 학교폭력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다. I나 J의 경우 학년이 바뀌더라도 ‘왕따’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녔다. 가해 학생들과 동일한 학교에 진학하거나 전학을 하더라도 SNS를 통해 자신의 왕따 경험이 빠르게 확산되는 방식으로 폭력이 네트워크화되면서 고통은 계속 이어졌다.⁸⁾

학교폭력은 신체적·심리적·정서적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주체의 내면세계를 황폐화시키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교우관계를 총체적으로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사회화 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참여자 모두 최소한의 교우관계를 맺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폭력을 당하는 과정에서 교우들이나 친구들로부터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느슨하게나마 관계를 맺고 지냈던 친구들도 가해 학생들을 무서워하거나 보복당할 위험 때문에 참여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다.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폭력 경험자들은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친구관계를 맺지 못했다. 이들 모두 그 시점부터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문화적 규범과 레퍼토리를 상실해 버린 듯 보였다. 문화적 규범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일련의 소통방법(대화기술, 감정 표현 등), 경험과 기억 공유, 내러티브 등을 포괄하는 공통의 의미체계를

5) 2024년 12월 12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E의 1차 인터뷰 중에서

6) 2024년 12월 9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C의 1차 인터뷰 중에서

7) 2024년 12월 8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B의 1차 인터뷰 중에서

8) 2024년 12월 20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I의 1차 인터뷰; 2024년 12월 20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J의 1차 인터뷰 중에서

일컫는다. 미드의 개념을 빌어 다르게 표현하자면, 참여자들에게는 ‘일반화된 타인(generalized other)’(미드, 2005: 226)이 불완전하게 형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단절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면 다양한 소통감각을 익히지 못했다. 이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 맺기 자체를 극도로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등 ‘사회화 회피기제’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교우관계의 불안정성은 참여자들의 학업성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내내 이들은 수업에 집중하지도 못했거나와 학업성취를 달성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다. 학업성취는 개인적 노력 외에도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고 상호협력하면서 자존감을 높여나갈 때 달성되는 사회적 노력의 산물이다. J는 특성화고 미용 관련 학과에 진학해서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흥미도 느꼈지만, 학내 괴롭힘으로 인해 J는 학업생활 전반에 걸쳐 집중력이 떨어졌고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의 은둔생활 시작 시점도 바로 이 직후였다.⁹⁾ B도 고등학교 시절 친구도 없이 “계속 홀로, 혼자 있는 느낌”으로 보냈고, 사람들 사이를 “(나는) 병풍이다하고 돌아다녔다.” B는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시간이 약이다’ 하면서” 이 시기를 참고 버텨내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라고 생각했다.¹⁰⁾

학습역량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지적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를 토대로 자기실현의 가능성, 예를 들어 상급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직업탐색이 이루어진다. 대학에 진학한 참여자들 중 자신의 소질이나 역량을 고려하여 전공을 택한 이들은 한 명도 없었다. 성적을 고려한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나 부모 혹은 주변의 권유에 휩쓸려 타의적으로 전공을 선택했다. C는 대학 수업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⁹⁾ 2024년 12월 20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J의 1차 인터뷰 중에서

¹⁰⁾ 2024년 12월 8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B의 1차 인터뷰 중에서

정도로 “뭘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봤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런 상황은 그의 대학생활을 점점 더 고립상태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는 “학교 수업 자체에 적응을 못 했고 친구들도 못 사귀고 이리다 보니까 맨날 집에 가서 게임하고 그때 뭐 했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우울해 있었다”. 그때부터 “은둔형(외톨이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세상이랑 나랑 안 맞구나.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¹¹⁾ B도 아버지의 제안을 따라 전공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본 적도 없었다. 대학 진학 이후에도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게 아예 싫었고 전기 전공인데, 솔직히 아직, 지금도 뭘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공부를 못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처럼 대학생할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보냈다.¹²⁾ G는 부모의 권유로 호텔경영학과에 진학했으나 자신과 너무 안 맞아서 대학 1학년 재학 중 자퇴했고, “목표도 없이” 거의 매일 음주와 컴퓨터게임으로 시간을 보냈다.¹³⁾

이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렸던 참여자들은 학업능력을 함양하지도, 나아가 학업성취를 달성하지도 못했다. 더구나 이들의 학업역량은 누적되거나 연속적으로 연계되지도 못했다. 결국 이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전문 직업인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학업역량이나 성취경험의 부재는 자기실현의 가능성은 물론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뜨릴 수 있다. 참여자 대부분이 현재 무직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계획과 자기확신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단기적이고 간헐적으로 일하면서 소득활동을 했던 노동세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11) 2024년 12월 9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C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2) 2024년 12월 8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B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3) 2024년 12월 26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G의 2차 인터뷰 중에서

3) 주변부-노동규율과 공전(公轉)적 커리어

참여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은둔생활이 지속되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노동시장 진입의 거둬진 실패와 노동현장에서 일하면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피로, 열패감, 좌절감, 두려움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노동능력 및 커리어의 부재도 계속 따라다녔다. 우선 참여자들 중 안정적인 직업집단에 소속되어 일해본 경험자들이 거의 없다. 참여자들은 노동역량과 경험이 부족했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인식도 불투명했다. 특별한 직무능력과 그에 걸맞는 노동규율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 참여자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일을 시작해봤지만, 노동규율의 비대칭과 직무 경계가 모호한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좌절과 이탈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작업장마다의 성격과 분위기 혹은 작업방식에 대응하는 노동경험이나 규율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진입했다.

참여자들이 참여한 노동시장은 대부분 단순서비스업이나 물류 및 제조업 내 3D 업무 분야였다. 대학 졸업 후 무직으로 지냈던 E는 얼마 전 센터로부터 휴게소 주유소 일자리를 소개받았지만 “하루 만에 도망쳐나왔다.” 출근 첫날부터 실수한 E는 “그때 새하얗게가지고 이거 망했다. 이거 하루가 이 정도면 나 이거 못 버티겠다.”며 작업장에서 도망쳤다. 단순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회계처리와 서류작성까지 요구받았고, 3개월 뒤 정직원 면접을 본다는 얘기에 “여기서 평생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겹쳐 곧장 그만두었다. 그는 “프리터라고 하나요? 알바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한다. 이유는 알바로 해야 일이 단순하고 어렵지 않고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부담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는 지금까지 스스로 먼저 일자리를 구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 부모의 세탁업을 배워 사업을 이어가면 어떠냐는 질문에 E는 “기술 배운다

는 것은 여기에(세탁소) 구속된다는 느낌이라 절대 기술은 배우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언제든 알바 정도는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막말로 저기 쿠팡 다니기만 하면 바로 하루에 10만 원 주니까, 안 할 뿐”이라면서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그때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¹⁴⁾

E처럼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이유로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사례는 다른 몇몇 참여자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직원(정규직)보다 알바 형태의 직업을 선호하며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무르려는 경향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서 확인되는 공통된 특성이다. 참여자들은 일정 수준의 노동규율을 습득하지 않은 채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터라 단순 업무마저도 낯설어 하고 부담스러워했다. 특히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작업장 내부 규율과 조직문화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주변부 노동을 맴돌면서 20대를 보낸 F는 식당, 피자가게, 극장, 주유소, 놀이공원, 스키장, 편의점, 콜센터, 목공소 등에서 일을 했다. 대부분 지인 소개로 접하게 된 단순노동이었다. F는 여러 일을 해봤지만 모든 일을 제대로 수행해본 적이 없다고 자책한다. 시내 극장에서 일할 때 매니저로부터 “행동이 굼뜨다”거나, “일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3개월 만에 해고당했다. 주유소에서는 혼유 실수를 했고, 피자가게에서는 피자 커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고당했다. 그가 일했던 작업장 대부분은 특정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리고 돌발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F는 이런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나 조직 내 직원들과의 소통능력과 직무수행에 걸맞는 노동규율을 겸비하지 못했다.¹⁵⁾

한편 참여자들이 일했던 주변부 노동시장은 직무 경계가 모호하며 업무의 통제권과 자율권도 거의 주어지지 않는 곳이었다. B는 특성화고 졸업

14) 2024년 12월 26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E의 2차 인터뷰 중에서

15) 2024년 12월 18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F의 2차 인터뷰 중에서

후 전문기술이나 자격증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울산의 모 정유소 협력업체에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맡게 됐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없지만 방사선 노출, 화상, 허리 부상 등도 우려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취업 시 작업환경이나 업무 성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로 입사한 상태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자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5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일에 대한 반감이 엄청 커졌고 한 번의 경험이있음에도 B는 “뭘 해볼 자신이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이 한 번에 지나지 않는 경험은 그에게 취업의지를 상실하게 해버릴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왔다.¹⁶⁾

G 또한 20대 이후 알바를 꾸준히 해왔지만, 한 일터에서 오랫동안 머물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일러스트 제작업체, 극장, 카페, 식당, 배송업체 등에서 길게는 5개월, 짧게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했다. 그는 현재 한 생활용품 대형매장에서 캐셔 업무를 보고 있다. 매장에 셀프계산대가 많아졌는데 문제는 캐셔 업무와 셀프계산대 업무가 분리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직원들의 비협조로 G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고객 컴플레인을 저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직원이 원래 와야 되거든요? 안 오고 그래서 알바 하러 가면 막 가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면서 G는 극심하게 예민해졌고 고객들과도 자주 싸웠다. 결국 “셀프계산대도 관리하고 고객 컴플레인도 응대하고 감정 쓰레기통 역할하고 계산대 주변 청소도 하면서” 직원들과 “벽 쌓고 혼자 일했다.”¹⁷⁾

참여자들이 경험한 주변부 노동시장은 저임금, 느슨한 분업체계, 모호한 업무 경계를 특징으로 했으며, 노동자에게 통제권과 자율권을 거의 부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서비스직종의 노동규율에 익숙하지 않았고, 공격

16) 2024년 12월 8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B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7) 2024년 12월 18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G의 1차 인터뷰 중에서

통제보다는 인격적 관계에 의한 통제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내부 권력관계의 최하층에 위치했다. 비숙련노동자로서 고용불안, 고강도 육체노동, 고위험, 부당한 과업과 직무스트레스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였고, 이러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노동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이 커지면서 주변부 노동시장으로부터 더 주변화된 공간으로 후퇴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생존지이자 사회화의 최후 장소는 자신의 방이었다. 이들에게 방은 유일한 피안처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는 문턱이기도 했다.

3. 퇴행과 탈사회적 일상

1) 회피의 감정동학

참여자들은 단절적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 불안(우울증이나 공황 등), 무력감, 두려움, 외로움, 낮은 자존감 등을 경험했다.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대부분 정신과 치료나 상담 경험 이 있고 몇몇은 현재에도 치료 중에 있다. 참여자들은 각각 생애 어느 시점부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해나갈 수 있는 의지를 상실한 채 공황장애, 트라우마, 우울, 대인기피,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무력감, 자기비하, 두려움, 불안,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호소했다. 이 같은 감정과 심리상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촉발했다. 이들의 감정이나 심리는 사회화 과정에서 발현되는 동시에 사회화를 저해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사회화의 역행 과정이 지속되면서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맺음을 지속시키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문화적 레퍼토리들을 상실해갔다. 사회화의 문화적 레퍼토리를 잃어가는 과정은 이들이 고립되고 사회적 관계를 회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는 학교폭력 경험에 대해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세상이 약육강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운 안 좋게 내가 걸린 거”라고 인식한다. 그는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디에서 뭐라도 하고 있을 것 같다”면서 현재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무력한 모습에 괴로워한다. E의 무력감은 그가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는 자체를 두려워하게까지 한다. “다시 일어나고 싶긴 한데 잊혀지지가 않아서 차라리 그 기억을 지웠으면 그래도 다시 뭔가 새로운 거에 흥미를 갖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뭔가 다시 쌓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너무 커요.” 어떤 일에 흥미를 갖고 시도하더라도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흥미와 관심을 압도한다. 그는 자신에게 ‘비관주의’가 너무 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다가도 “분위기가 좀 나쁘게 흘러가면 바로 물들어가지고 바로 컨트롤이 안 된다”고 말한다.¹⁸⁾

F는 “뭔가를 잘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제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다며 시종일관 자신을 낮췄다. F는 인터뷰 내내 유독 자존감이 낮고 자기비하적 태도를 보였다. “기술도 없는데 링 위에서 되게 계속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 할까? 상대방은 계속 때리고 있고 저는 맞으면서 버티고 있는” F는 자신을 “너무 뒤쳐진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이 나이에 기반이 없고 직업도 없”는 “너무 못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현실에서 많이 뒤쳐져있다는 자기인식은 불안과 무기력을 촉발하고, 성취 경험이 없을수록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하가 주체의 심리적 하부구조를 형성한다.¹⁹⁾

퇴행과 현실도피는 객관적인 현실인식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양식을 유발한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대인관계의 레퍼토리를 결

18) 2024년 12월 12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E의 1차 인터뷰 중에서

19) 2024년 12월 18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F의 2차 인터뷰 중에서

여한 것처럼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제스처를 취하며 조용할지에 대해 막막한 감정을 드러냈다. B는 “이제 사람들과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낮은 자존감 혹은 자기비하는 그들을 현실도피를 넘어 더 극단적인 행위로 이끌기도 했다. B는 공익근무 이후 경제활동도 전혀 하지 못하고 1년 정도 방황하던 시점에 처음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어느 순간 막 그 시점까지 오니까, 극단적인 생각도 계속하고. 실제로 시행해보진 않았지만은, 계속 저의 삶에 대한 회의감 그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는 대학 졸업 후에도 1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극단적인 생각이 좀 더 커지기도 하고, 약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끝까지 갔었다”고 토로했다.²⁰⁾ H는 몇 년 전 자살을 시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봐도 뭘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허하다? 그런 느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뭘 해도 해소가 안 되는 그런 기분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²¹⁾ I는 최근 가족과 갈등을 빚다가 갑자기 자살을 시도했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극단적인 데까지 가버려서. 그런 생활에 질린 거죠. 힘들고.”²²⁾

2) 미분화된 시·공간과 탈사회적 일상

참여자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집 혹은 사적인 공간 중에서도 가장 사적인, 자기 방에 틀어박혀 생존해나간다. 이들에게 방은 물리적 단절과 심리적 고립을 표상하는 이중적 장소이다. 달리 말해 사회적 고립의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는 피난처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방은 사회적

20) 2024년 12월 8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B의 1차 인터뷰 중에서

21) 2024년 12월 26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H의 2차 인터뷰 중에서

22) 2024년 12월 24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I의 2차 인터뷰 중에서

폭력에 맞서 자발적으로 쌓아 올린 최후의 방어선이자 안전지대이다. B는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람을 피해다녔고 방과 후엔 집으로 빨리 가서 쉬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외로움을 상쇄하는 방법이었으며, 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거나 홀로 음식을 먹었다.²³⁾ 학교를 “지옥으로 걸어 다니는 거”라고 표현한 I는 조퇴를 자주했는데, 귀가하면 방에 틀어박혀 온라인 게임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채웠다. I에게 온라인 게임은 일종의 “탈출구”였다.²⁴⁾

은둔생활 청년들은 비좁은 방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다시 시작했다. 방 안의 삶은 전혀 다른 질서로 재편된다. 먼저 시간과 공간적 질서가 일반적인 사회적 시·공간과 다르게 조직된다. 이들의 생활은 체계적으로 혹은 표준화된 시간과 공간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엄밀한 시간규율이나 규칙성을 갖지 않는다. 시간규율과 규칙성은 현대사회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선형적 조건이다. 일반 사람들은 표준화된 시간체계에 따라 일과 여가,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을 구분하면서 각각의 활동에 부합하는 시간규범을 따른다. 시간규범은 사회적 시간과 개인적 시간을 구분하여 각각 내적인 규칙성과 규율을 부과한다. 그러나 은둔생활자들에게 이러한 구분은 통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삶은 사회적 시간보다 개인 시간을 우위에 두며, 체계적인 계획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생활리듬, 즉 ‘탈사회적’ 육체리듬을 따른다. 24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다. 그런데 이 시간은 탈대면적 사회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시간리듬은 육체의 대응양식도 변화시킨다.

참여자들의 일상은 ‘미분화된 시·공간’으로 얽혀있다. 수면과 식사는 불규칙했고, 주중과 주말의 구분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으로 채웠다. 방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

23) 2024년 12월 8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B의 1차 인터뷰 중에서

24) 2024년 12월 20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I의 1차 인터뷰 중에서

적 분할도 의미가 없다. 이들에게는 분절된 공간보다 통합된 하나의 공간이 더 합리적이다. 가급적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둔생활은 매우 단조로우며 서사가 결여된 반복 행위의 연속이었다. H는 은둔생활을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집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졸리면 잔다.” 밥은 “차려져 있으면 먹고 안 차려져 있으면 안 먹는다.”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는 물음에도 그는 아주 짧게만 답했다. 마치 하루 동안의 서사를 몽땅 상실한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했다.²⁵⁾

A는 한 라면 공장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 집안에서 “폐인처럼 생활했다.” 그에게 폐인생활은 집 안에서 게임만 하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으며, 모든 활동이 “랜덤”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을 뜻했다. “자는 것도 랜덤이고, 일어나는 것도 랜덤이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는다” 생활이 반복된다. 식사는 불규칙적이고 음식도 “자극적인 것만 많이 먹는다.” 그는 “집밥 같은 음식은 절대 먹어 본 적이 없”다면서 주로 “치킨, 피자, 햄버거, 라면, 편의점 도시락, 소세지, 찌개류, 이런 거, 다 정크푸드”로 끼니를 채운다. 수면과 식사를 빼면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으로 보냈고, 이를 두고 “질리지만 할 게 없으니 그냥 하는 거”라고 말한다. 그는 “시간이 엄청 잘 가긴 하지만” 모든 걸 혼자 해야한다는 현실 때문에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²⁶⁾ 시간과 공간의 미분화는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게 한다. 참여자들은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다’고 하지만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고 인식한다.

10년의 은둔생활을 보낸 I는 침대에 누워 게임, TV 시청, 야식 먹기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는 은둔하는 삶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한편으로 “편했어요. 자극이 없으니까. 그리고 신경 쓸 게 별로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라면서도 “한편에는 죽고 싶다. 삶에 미련이 없

25) 2024년 12월 19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H의 1차 인터뷰 중에서

26) 2024년 12월 6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A의 1차 인터뷰 중에서

다. 자극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외로우니까. 일방적이잖아요.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중성에 놓일수록 외로움과 답답함은 훨씬 더 가중된다. 외로움은 “불쑥 찾아와요. 제가 게임을 하고 있거나, 밥을 먹거나, TV를 본다거나, 다른 일을 할 때, 불쑥 찾아오더라고요.” I에게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열심히 게임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밖에 없다.” 외로움과 은둔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디지털매체에 더 의존하게 된다.²⁷⁾

대면 교류가 없는 참여자들에게 인터넷과 디지털플랫폼은 가상적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현실생활의 시·공간적 미분화는 디지털세계에서 새로운 시·공간적 배치로 전환된다. 이들은 디지털세계에서 ‘누군가’와 만난다. 디지털세계에서 관계맺음은 휘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자기의지로 언제든지 관계를 끝내버릴 수 있다. 이곳에서의 교류는 참여자들이 현실에서 경험했던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준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디지털매체 활용은 수동적이고 일방향적이라는 점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생산적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맹목적인 디지털매체 이용은 은둔생활을 좀더 개방적인 세계로 인도하기보다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로 몰아넣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디지털세계의 연결을 통해 ‘은둔 속 사회적 삶’을 살아간다. 완전한 고립을 피해갈 수 있는 작은 틈새가 디지털장치를 통해 제공된다. 표준화되고 고착화된 시·공간적 질서를 탈피한 디지털세계에서 은둔생활자들은 제한 없는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는 ‘탈관계적인 외로운 자유’라는 점에서 더 고립된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이로써 이들에게 디지털미디어는 은둔생활을 더 가속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27) 2024년 12월 20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I의 1차 인터뷰 중에서

3) 은둔 속의 은둔: 디지털미디어의 이중성

참여자들이 방 안에서 주로 하는 일은 유튜브시청, 게임, SNS 등 디지털 미디어 기반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다. 디지털세계에서 이들은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과 정반대되는 ‘초연결된’ 삶을 산다.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게임을 통해 사람들과 접촉한다. 참여자들처럼 은둔생활자들에게 게임이나 디지털 연결은 사회적 관계를 대체하는 장치들로 활용되지만 여기에 몰입하면 할수록 일상의 고립화는 더 가속화된다는 사실은 그간의 많은 연구들이 증명해주고 있다(Cacioppo, Fowler & Christakis, 2009; Dahlberg, 2007). 이들에게 디지털세계는 현실적 삶을 대체해주거나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시·공간이다(Morahan-Martin & Schumacher, 2003; Pittman & Reich, 2016). 참여자들에게 디지털 시·공간은 도피나 은둔의 존재론적 토대로 작용했다.

C는 “현실 도피해야 하고 현실이 보기 싫을”수록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했다. 인터넷게임에 빠지게 되면서 현실과 괴리된 생활을 이어갔다. 게임 유저들과 친해지면서 꽤 오랫동안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과는 “얼굴도 안 보고 그러는데 과하게 친해져 버린 거예요.” 대학 복학 전까지 1년 반 정도를 매일 아침 7시까지 게임하면서 ‘수다떨기’를 반복했다. “그 사람들 만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C에게 게임세계와 이를 매개로 만난 유저들은 현실도피를 위한 수단과 일시적 위안(또는 즉흥적 쾌락)을 제공했다.²⁸⁾

E에게 게임은 C와는 다른 형태의 원동력이었다. E는 중학교 시절 괴롭힘을 당한 경험 때문에 “사람을 싫어해서” 게임 플레이어들의 혼한 모임인 ‘길드’ 활동도 하지 않았다. E는 길드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자신감마저도

²⁸⁾ 2024년 12월 17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C의 2차 인터뷰 중에서

없다. 요즘에도 “게임을 안 하는 날이 없고 안 하는 시간이 없”는 그는 현실을 생각하면 죽고 싶지만 게임하고 싶은 욕망, “도파민 때문에 안 죽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막막하고 힘들거나 불안할 경우 게임이 이를 해소준다는 것이다. E가 게임을 통해 얻는 건 목적달성을 통한 성취감이다. 그는 근래 농사짓는 생활을 컨셉으로 한 게임을 자주 하는데, 그 이유는 게임 안에서는 몸이 아플 일이 없고 위험한 일도 없으며, “빨리빨리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에서는 목적달성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길이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뭘부터 해야될지 감도 안 잡히는 게 대다수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머리 아프니까 내려놓은 거”라고 말한다. 그는 현실에서도 자신의 삶을 길라잡이 해주는 “가이드가 있었으면” 그대로 따라서 살았을텐데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 막막했다. 게임을 멈추게 되면 “게임 했었던 그 메모리를 정리하는 시간이라 그냥 멍하니 있어요. 근데 진짜 저의 인생인 것 같아요.”²⁹⁾

E의 사례는 한 가지 질문을 상기시킨다. 은둔생활자에게 디지털매체 이용은 현실도피나 수동적 소모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주체성이나 대안적 주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실천으로 볼 것인지 말이다. E처럼 게임에서 ‘현실 가이드’를 찾는 모습은 이들이 현실세계의 규율은 거부할지라도 디지털세계에서는 자신만의 규율을 만들어 낸, 소극적이거나 대안적 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는다(Lee, Noh & Koo: 2013; Turkle, 2011). 즉, 이들을 ‘피해자’나 ‘패배자’로 단정짓는 것을 넘어서, 좁고 폐쇄적인 방 그리고 디지털세계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촉발되는 행위성(agency)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미디어 이용은 논쟁의 현장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에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직

29) 2024년 12월 26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E의 2차 인터뷰 중에서

회의적이다. 이들의 디지털매체 이용이 현실세계에서 겪는 고통과 위험을 대체하거나 극복해나갈 수 있는 수준의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답을 하지 못했다. 대부분 ‘아무 거나 본다’, ‘재미있는 거 본다’ 정도의 대답 외에 어떤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시청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A는 “사람들이 보는 건 다 봐요. 인기 많은 건.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많으니까”라고 하면서 시청목적은 주로 ‘흥분, 도파민, 시간 때우기’라고 한다. 그럼에도 이용하면 할수록 “점점 피폐하고 고독하고 힘들다”고 말한 A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 즉흥적인 재미와 쾌락 혹은 맹목적 시간보내기는 외로움, 고립, 고독을 의미하는 또 다른 행위로 볼 수 있다.

4. 은둔관행

1) 의존과 소모의 경계

참여자들은 생애 동안 소득활동 경력도 매우 짧고 비숙련·저임금의 계약직이나 일용직만으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일부는 고위험군에 속함에도 고용을 보장받는 작업장에서 일해봤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다. 짧고 단절적인 노동이력은 이들의 경제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들은 무직 상태로 보낸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축적해놓은 자산도 없다. 이런 상황은 소비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을 가했지만 심지어 소비감각 자체를 상실하게 까지 만들었다. 참여자들 중 몇몇은 현재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자들 모두 은둔생활 내내 전적으로 부모의 수입에만 의존했다. 이

들의 은둔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도 부모가 최소한의 ‘방’과 ‘용돈’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부모 각각으로부터 월 20만원 정도(총 40만원) 용돈을 받는 B는 부모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미안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돈을 버는 일에는 주저한다. “잘할 자신이든지, 할 자신이 아예 없어요.” 아르바이트 기회가 오더라도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일단 고민이 클 것 같고, 하게 된다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 자책하면서 B는 “이 나이까지 왔는데, 손에 놓인 게 없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한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계속 이려고 있는 모습 봐도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밖에 나갈 자신이 없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낮은 자존감까지 가중되면서 그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³⁰⁾ E 역시 부모에 대한 의존을 당연시하며, 어머니가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저밖에 없다 보니 (어머니가) 저를 독립시키지 않으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면서 자립 불가능성을 합리화한다.³¹⁾ I, J, C 역시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신의 처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10명 중 2명만 정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생활비나 용돈을 받으며 살았다. 용돈조차 없이 은둔생활을 해야했던 이들은 필요시 부모에게 요청할 뿐 죄책감 때문에 정기적인 용돈을 기대하지 않았다. 생산활동에 무력한 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대신 최소한의 소비로 자신의 무능과 죄책감을 상쇄한다. 이들이 부모에게 갖고 있는 미안함, 자책감, 수치심은 소비행위를 원초적 수준으로 축소시킨다. 또한 이들의 소비활동은 즉각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 여가, 취미, 사교 등 재생산을 위한 소비로 진전되지 않는다.

한편 G는 부모로부터 적지 않은 용돈을 받은 유일한 사례에 해당한다.

30) 2024년 12월 17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B의 2차 인터뷰 중에서

31) 2024년 12월 26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E의 2차 인터뷰 중에서

그는 용돈을 주로 유흥과 먹거리에 써버리거나 그 외에도 인터넷게임을 위해 어머니의 신용카드나 아버지로부터 매달 상당한 금액의 휴대폰 소액결제(약 6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가 지원해주었다. G는 그 돈으로 “맨날 술 마시고 연애도 하고 다 했죠.” 은둔생활 동안 “모아둔 돈 쓰면서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속에서만 살았던” G는 ‘엄마 카드’로 게임에 돈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어머니에게 많은 빚까지 떠안겼다. 급기야 국가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은 돈까지 게임에 다 써버렸다. 그럼에도 G는 “게임이 더 중요하니까, 쾌락이 더 중요하니까” 멈추지 못했다. “죄책감이 너무 심했다”며 이런 자신의 행위를 두고 “미친 년 짓”이라고 비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G는 “게임 안 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다.” 그는 은둔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자살 시도까지 했으나 게임을 하면서 그 충동을 겨우 억누를 수 있었다고 한다.³²⁾

이와 같이 참여자들의 생존에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의존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뚜렷한 탈출구도 없고 미래를 계획할 역량도 결여된 상태에서 이들의 최후 선택은 죄책감을 감수한 의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부모와 살면서 두 가지 행위전략을 습득한다. 가족구성원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소비를 극소화하는 생활양식을 병행하면서 은둔하는 삶의 행위규범을 실행해나간다. 이는 장기간 의존하고 은둔하는 과정에서 체화된 은둔관행의 에토스로 고착화된다.

2) 우발적 기대와 요행: 주관적 의지 VS 객관적 조건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사회화의 길을

32) 2024년 12월 18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G의 1차 인터뷰 중에서

모색 중에 있다. 그 방편 중 하나로 <광주은둔형외톨이센터>를 방문해서 이곳의 몇몇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있다. 당장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들은 제한적이거나 희망적인 미래를 탐색 중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주관적인 기대를 실현시켜 나가기에는 이들이 생애과정 동안 쌓아온 물적 자원, 개인역량, 노동이력, 심리적 지지 등은 객관적으로 빈약하다. 탈은둔 의지가 있더라도 이를 실행해 나갈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둔생활이 계속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들은 주관적 의지와 객관적 조건 간의 간극 사이에서 고민과 불안을 반복하고 있다.

H는 요즘 베이킹에 빠져 있다. 유튜브를 시청 중 우연히 관련 방송을 보고 관심이 생겼다. 가족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뭔가 잘하는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했다.” 제빵사가 꼭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녀는 단지 “남들처럼 일하는 것”을 바랄 뿐이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싶고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아무 일이 나 할 수 있다면” 좋겠고, 다만 “주변이 호의적이었으면 좋겠고,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H가 직면한 현실은 냉혹했다. 그는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구직정보를 검색해본 기억을 떠올리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데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라며 좌절감과 막막함을 드러냈다. H는 ‘아무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의지만은 분명히 내보이고 있다.³³⁾

참여자들의 노동이력이나 직업경험의 절대적 부족은 주관적 의지를 실행할 방법의 결핍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알고 있는 구직정보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J는 미래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일은 없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정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만? 미래에는 뭐 할 건지? 그때그때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

33) 2024년 12월 26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H의 2차 인터뷰 중에서

정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³⁴⁾ D는 여태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실현나갈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때그때 하는 편”이거나 “그냥 닥치면 한다”면서 스스로를 “무계획적”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취업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알아보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다.³⁵⁾ J나 D는 서로 다른 이유로 청년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인식은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둔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A는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노동경험도 많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수행한 편이다. 다만 일터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직장 내 직원들과의 잦은 불화로 인해 오랫동안 일을 못했을 뿐 그는 세간의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일”을 하고 싶어한다. A는 살아오는 동안 자신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지원과 도움을 되돌려주려는 마음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사회복지사가 되는 목표를 세웠다. 학업과 함께 자활사업도 병행하면서 “엄청 바쁘게 살았죠. 진짜 남들보다 한 2배 3배는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수업은 흥미로웠고 학과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졸업도 했지만 그 이후 직업을 갖지는 못했다. 시설에서 자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시설아동센터와 같은 시설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서 자격증 준비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 후로 몇 번 취업준비를 시도했지만 정신적 불안감이 심해서 현재는 “그냥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는 이런 자신의 행동을 “회피”로 표현했다.³⁶⁾ A는 “지금 탈출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며, “기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어”한다. 은둔생활은 “죽겠더라”며 누군가와 무엇이든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

34) 2024년 12월 24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J의 2차 인터뷰 중에서

35) 2024년 12월 18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D의 2차 인터뷰 중에서

36) 2024년 12월 7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A의 2차 인터뷰 중에서

이 절실하다. C, B 등도 유사한 막막함을 토로했다. C는 “뭘 해야될지 모르겠다”면서 조직생활의 위계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³⁷⁾

참여자들 중 일부는 취업을 기대하거나 구직희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실령 있더라도 모두 막연하고 허황된,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기대들 뿐이었다. I는 예술 쪽 큐레이터를 꿈꿔왔다고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해본 적이 없고, 교육자원, 경험, 이력, 경제적 자원 등 객관적인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는 지자체나 정부지원 취업프로그램을 활용해보고자 몇 번 시도해봤지만 그 기회가 자신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탈북민 등 자신보다 더 약자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은 지원대상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요 정책들이 서울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자신은 정작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부정책에서도 자신은 사각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이유를 들며 “광주를 떠나고 싶”다고 말한다. I의 이런 바람과 달리 그녀가 광주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I는 현재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작은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실패한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막상, ‘아, 이런 생활 벗어나야지’ 하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³⁸⁾

한편 E와 D는 노동이나 직업을 통한 미래설계보다는 ‘요행’이나 ‘한탕’을 기대하고 있다. ‘게임 없이는 자신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한 E는 10년 후에도 자신은 지금처럼 게임을 하고 있을 거라면서 매주 로또를 구매한다. 그는 약 5억 원 정도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로또에 당첨되는 길뿐이라고 말한다.³⁹⁾ D도 거르지 않고 매주 로또를 구매한다. 그

37) 2024년 12월 17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C의 2차 인터뷰 중에서

38) 2024년 12월 24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I의 2차 인터뷰 중에서

는 여태 살아오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때그때 하는 편”이거나 “닥치면 한다”면서 “무계획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일을 해서 돈 벌 계획은 “좀 먼 얘기 같아서” 그 시간을 로또로 메워보겠다는 계산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로또에 당첨되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자산을 축적하겠다는 요행은 실현 가능해 보이는 계획보다 먼저 고려된다. D는 부모님도 매주 복권을 구매한다면서 아버지와의 주된 대화주제도 “로또 번호 생각하고 당첨되면 뭐할지”를 상상하는 이야기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꿈이 ‘12억 정도 당첨되면 여행도 가고 주식이나 코인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로또에 “한 번도 당첨되어 본 적은 없어요.”⁴⁰⁾

5. 나오며

본 연구는 현재 은둔생활 중에 있거나 경험해본 청년 10명의 구술생애사를 채록했고, 그들의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둔생활로 이르게 된 궤적을 총체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인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전제 아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청년의 은둔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먼저, 불안정하고 소통이 빈약했던 가족환경은 참여자들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 균열을 만들었다.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불화와 이혼, 정서적 방임과 소통의 부재는 안정적인 애착 관계 형성을 저해했다. 이는 참여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내내 상호 간 신뢰와 소통능력을 쌓

39) 2024년 12월 26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E의 2차 인터뷰 중에서

40) 2024년 12월 11일,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D의 1차 인터뷰 중에서

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들에게 가족은 사회적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피안의 세계가 되지 못했다. 가정의 불안정함 위에 학교 폭력이 더해지면서 사회적 단절은 심화되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학교 폭력과 괴롭힘, 따돌림의 직접적 피해자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일시적 고통을 넘어 그들의 전 생애를 따라다니는 트라우마로 작용했다. 가해자의 물리적,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어른의 방관, 또래의 무관심으로부터 느낀 배신감과 무력감은 타인과 사회 전체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심어놓았다. 이들에게 학교는 사회화의 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교우관계의 총체적 고립은 청소년기에 형성되어야 할 사회적, 정서적 역량의 발달을 가로막았고, 학업성취나 자기실현의 경험을 쌓는데도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들의 성인기 이행은 한층 더 가혹한 여정이었다. 불안정한 학업이력과 사회적 자본, 대면 기술의 부족 속에서 참여자들은 문턱이 낮은, 대개 지역 내 주변부 노동시장(주로 단순 서비스업)을 배회했다. 사실 이들에게 세간에서 지적하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만 문제가 되었던 건 아니다. 이들이 힘들어했던 건, 비대칭적 권력관계, 상사와 고객의 무시와 모욕, 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직무와 과도한 노동 통제였다. 달리 보자면 이들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동규율을 신체화하지도 못한 채 노동시장으로 진입했다. 가정과 학교에서 이미 상처받은 자존감은 노동현장에서 더욱 깎아지른 듯했다.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노동의욕을 상실하고, 사회로부터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은둔생활은 더 이상 선택지가 남지 않았다는 상황에서 택한 불가피한 후퇴였다.

참여자들의 단절적 사회화 과정은 특정한 '일상성'으로 귀결되었다.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진 결과, 은둔생활은 통상적인 표준시간이나 규범과 분리된 고유한 시공간적 특징을 띠게 되었다. 은둔생활은 '미분화된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밤낮 구분이 없고, 평일과 주말의 경계도 없으며,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 그리고 씻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말하곤 했다. 이는 방 안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필요노동과 정반대되는 잉여활동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방’은 은둔생활자의 모든 행위가 공간적 구분 없이 한데 뒤섞여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단순한 사적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방은 먹기, 수면, 게임, 인터넷, SNS 이용하기 등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물리적 장소이자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저지선’이다. 이에 더하여 이들에게 ‘방’은 불안정한 가족, 학교폭력, 견뎌내기 힘든 노동현장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는 위안의 장소이다. 표면적으로는 스스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신뢰와 관계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은둔생활과 고립은 복합적인 정서적 고통을 수반했다. 무력감, 자기비하, 우울, 불안, 외로움 등이 뒤엉킨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상하지 못했다. 은둔생활은 깊은 실존적 위기로 이어졌다. 디지털미디어, 특히 게임과 유튜브는 현실도피의 수단이자 유일한 세계와의 연결고리였다. 어떤 이들은 온라인 게임 속 아바타로 살아가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무한한 콘텐츠에 빠져들며 가상의 초연결 속에서 실제의 단절을 잊으려 했다.

끝으로 고립된 일상성은 특정한 ‘은둔관행’을 통해 재생산되었다. 이 ‘관행’들은 고통스러운 은둔의 ‘일상’을 지속시키는, 참여자들이 무의식적/의식적으로 수행하는 합리화된 행동양식이자 일상의 실천이었다. 첫째, 이들은 경제적 의존 체제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 부모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원받으며 생활했다. 하지만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의존을 합리화해

나갔다. 둘째, 이러한 의존적 상황은 미래를 위한 투자나 자기계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들의 소비행위는 목적합리적 행위나 미래의 계획을 고려한 투자와 관련이 없는 당장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적 목적에 머물렀다. 절대적 결핍상태에서 일차적 욕구를 해결하거나 게임이나 유흥으로 ‘현재’를 소모하는 것(G의 “올로”)으로 고통을 상쇄했다. 셋째, 일부 참여자들은 ‘우발적 미래’에 기대를 걸었다. 매주 ‘로또’를 구매하는 참여자의 사례(E와 D)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적인 미래 계획(취업, 저축)이 ‘단절’되었을 때, ‘요행’에 기대는 것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지향적’ 실천이자 ‘관행’이었다.

본 연구의 기저에는 오늘날 ‘문제적’ 인구집단으로 범주화된 은둔생활자, 그 중에서도 은둔청년들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의 숨겨진 일상화된 폭력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달리 말해 어떤 폭력과 권력 기제들이 이들의 삶을 좁은 방으로 몰아세워 가두면서 반사회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인지를 묻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기도 하다. 은둔생활자들이 살아온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은 지금 시대의 가시화되지 않은 폭력들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현대로 올수록 비가시적인 폭력들은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 특정 대상을 문제적 인간으로 낙인화하거나 병리적으로 취급한다. 이는 오늘날 횡행하는 ‘인종주의적 죽음정치’(음벰베, 2025)의 징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은둔생활자들은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비추는 ‘영상자아들’(looking-glass selves)로서 일그러진 사회의 형상이기도 하다. 언젠가 이들이 방의 문턱을 넘어 세계로 한 발짝 내딛게 되는 순간이 일상적 폭력의 그림자를 지워가는 새로운 사회화 과정이 될 수 있다면 이들을 포용하고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길부터 모색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참고문헌】

- 김광희, 2020, “한국의 청년 실업과 히키코모리 문제: 일본의 중장년 히키코모리와 8050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16(3): 467-480.
- 김덕영, 2014, 『계오르그 집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파주: 길.
- 김미경, 2021,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해석현상학적 분석』,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아 외,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아래미, 2023, “외로움에 대한 영국의 제도적 대응: 연결된 사회,” 『국제사회보장리뷰』 27: 5-16.
- 김종진, 2006, 『달팽이 껍질 속으로 숨은 외톨이』, 서울: 해피아워.
- 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9(10): 1-32.
- 노가빈·이소민·김재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 류주연 외, 2023, “청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가,” 『사회과학연구』 34(3): 47-71.
- 류황석, 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일본의 지원정책과 현황: 히키코모리 지원과 ‘고독·고립 대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7.
- 미드, 허버트, 2005, 『정신·자아·사회』, 나은영 옮김, 한길사.
- 바우만, 지그문트, 2019,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안규남 옮김, 서울: 동녘.
- 박주홍 외,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 박현숙, 2004, 『사회적 히키코모리에 관한 일 연구: Bowen의 이론을 통해 본 히키코모리 사례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PMI.
- 신영규, 2023, “핀란드의 사회 배제 청년을 위한 지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7.
- 야마다 마사히로, 2010, 『희망 격차사회』, 최기성 옮김, 서울: 아침.
- 에릭슨, 에릭, 2022, 『정체성』, 윤초희·정현천 옮김, 파주: 교육과학사.
- 오상빈, 2020, 『고립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은둔형 외톨이 치유와 예방』, 서울: 솔과학.
- 우치다 다쓰루, 2013, 『하류지향』, 김경옥 옮김, 서울: 민들레.

- 유민상 외,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택림, 2013,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강원: 아르케.
-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음뱌메, 아실. 2025. 『죽음정치』. 김은주·강서진 옮김. 파주: 동녘.
- 이규미 외, 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3(1): 147-162.
- 이상인 외, 2021,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실태 분석 연구』, 서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이상희, 2010, 『은둔형 외톨이 개념의 사회적 구성과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베 우시오, 2009,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서울: 대솔바람.
- 이윤지, 2015, “한국 청소년에서 사회적 은둔의 정신병리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54(4): 549-555.
- 이지민, 2019,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은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충한, 2018, 『비노동사회를 사는 청년, 니트』, 서울: 서울연구원.
- 임형문 외,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광주: 광주광역시.
- 임형문 외, 2021,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광주: 광주광역시.
- 정근하·노영희, 2022a,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출현 배경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6(1): 229-250.
- 정근하·노영희, 2022b,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의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26(2): 137-158.
- 정다운, 2023, “독일 연방정부의 외로움 대응 전략,” 『국제사회보장리뷰』 27.
- 정세정 외, 2025,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미형·고아라, 2022, “사회적 고립 청년은 누구인가? 고립청년 지원사업 참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4): 127-152.
- 청년재단, 2020,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서울: 청년재단·파이교육그룹.
- 청년재단, 2022, “2030 청년들의 ‘불안, 우울감, 번아웃’ 지수는?” 청년재단 보도자료 (월일 미상).
- 피셔, 마크, 2024, 『자본주의 리얼리즘-대안은 없는가』, 박진철 옮김, 고양: 리시울.

- 허경운, 200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문제와 분석에 관한 연구: 전화 상담, 사이버상담사례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츠, 노리나, 2021, 『고립의 시대: 초연결 세계에 격리된 우리들』, 홍정인 옮김,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 황순길 외, 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Amichai-Hamburger, Y. and E. Ben-Artzi, 2003, "Loneliness and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9(1): 71-80.
- Amichai-Hamburger, Y. and Z. Hayat, 2011,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the social lives of users: A representative sample from 13 countri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1): 585-589.
- Barker, D., 2012, *All the lonely people*, Canberra: The Australia Institute.
- Beller, J., 2024, "Social Inequalities in Loneliness: Disentangling the Contributions of Education, Income, and Occupation," *SAGE Open* 14(3): 1-10.
- Cacioppo, J. T. et al., 2009, "Alone in the crowd: The structure and spread of loneliness in a large social net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77-991.
- Cacioppo, J. T., 2010, *Loneliness*, New York: WW Norton.
- Dahlberg, K., 2007, "The enigmatic phenomenon of lonel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on Health and Well-being* 2(4): 195-200.
- Franklin, A. S., 2009, "On loneliness," *Geografiska Annaler* 91(4): 343-354.
- Franklin, A. S., 2010, *City life*, London: Sage.
- Franklin, A. S., 2012, "A lonely society? Loneliness and liquid modernity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7(1): 11-28.
- Hookway, N. et al., 2019, "Loneliness and love in late modernity: Sites of tension and resistance," in Roger Patulny et al. (eds.), *Emotions in Late Modernity*, London: Routledge, pp. 83-97.
- Kiley, D., 1989, *Living together, Feeling alon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Lee, K. T. et al., 2013, "Lonely people and no longer lonely on social networking site,"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6(6): 413-418.

Lee, Yookyung and Seungwoo Han, 2024, "Perceptions of inequality and loneliness as drivers of social unraveling: Evidence from South Korea," *Scientific Reports* 14: 26922.

Morahan-Martin, J. and P. Schumacher, 2023, "Loneliness and social uses of the interne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9(6): 659-671.

OECD, 2025, *Social Connections and Loneliness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Publishing.

Pittman, M. and B. Reich, 2016, "Social media and loneliness: Why and Instagram picture may be worth more than a thousand Twitter word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2: 155-167.

Sohei, Ide, 2008, "Hikikomori as Sociological Problem," *Annals of Human Sciences* 29(2): 1-23.

Turkle, S., 2011,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Basic Books.

투고일: 2026. 01. 31. 심사일: 2026. 03. 05. 게재확정일: 2026. 03. 05

Abstract

Disrupted Socialization and Practices of Seclusion in Young Recluses: Emotional Dynamics of Isolation and Regression

Joung, Sunam · So, Junchol

(Department of Soci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Center for History and Cul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social withdrawal among young people through in-depth life history-based interviews with ten individuals who had experienced social withdrawal. The findings revealed that, firstly, their withdrawals were not individual choices or results of a single incident, but rather the outcome of a “disrupted socialization” process characterized by accumulated failure and deprivation across the family-school-labor market continuum. Second, this process inevitably caused them to withdraw from society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or them, the “room” functioned as a final safety space protecting them from social violence and as a survival strategy, becoming a space of undifferentiated everydayness. Third, this isolation was reproduced through specific withdrawal practices, such as economic dependence, wasteful consumption, and reliance on “contingent futures” like lottery tickets. Finally, young recluses are the result of the projection of unseen, everyday violence within Korean society. This study suggests that rather than pathologizing young recluses as patients, we should

recognize them as mirrors reflecting our society's inner workings. It underscores the need for institutional and ethical reflection to reconstruct their socialization process.

Key words : Young recluses, Disrupted socialization, Withdrawal practices,
Life history